

[아티스트 노트]

교카

COVID-19 영향으로 우리는 과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거리감 속에 갑자기 살게 되었습니다. 결과적으로, 저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사고 과정, 행동, 장치 및 경험을 더 잘 수용하도록 변화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. 물론 이러한 거리감 변화에는 단점도 있지만 새로운 가치, 친밀감 그리고 부유함 등등의 일부 장점도 있습니다.

저는 이번 공연에서 사운드 아티스트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이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 생겨난 "거리감"을 우리가 어떻게 즐기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이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

사운드는 증가된 거리도 가장 원활하게 이동하는 넓고 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20-63Hz 사이 음파들로 선택되었으며, 균형을 위해 기본으로 사용되는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백색 소음 형태입니다.

공간을 왜곡하는 감각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별 변화는 관중의 얼굴 / 신체적 표현 실시간 관찰에 의해 상호작용적으로 생성됩니다. 이런 방식으로 관중은 베를린에서 전송된 전기 신호였던 소리를 "듣거나 느끼게"될 것이고, 이 "경험"은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그들의 뇌로 전달될 것입니다. 이 전기 신호를 여러분의 기억, 감정 및 의식 등에 성공적으로 연결 가능하게 되면, 체계가 어떻게 다음 감각을 해석하게 할 지는 청중에게 달려 있습니다. 행동으로 변환시키기, 과거 기억 향유, 또는 미래기억과 연결 그리고 기억 재작성 등과 같은 여러 선택지가 있지요.

이와 같이 먼 곳으로부터 전송된 음악이라는 전기 신호에 의해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내적 과정/경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이 공연이 여러분의 즐거운 미래로 번역되기를 바랍니다.

마지막으로 이번 퍼포먼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